

한국 생명공학 기술 “세계 주목”

Nature, 2005년 게재논문 12건 소개 ...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동인

세계가 한국의 생명공학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인 학술저널 Nature는 10월20일자에서 성균관대 김경규 교수의 <DNA의 새로운 3차원 구조 발견>에 관한 연구논문을 표지논문으로 실고 이례적으로 별도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생명공학과 과학기술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Nature는 기사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가 Nature에 발표된 것이 2005년 들어 무려 12건에 이르며 Nature에 발표된 한국인 저자 논문은 69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10월17일부터 22일 1주에 한국인 저자가 Nature에 발표한 논문은 3건에 달했다.

또 2005년 Nature에 논문을 투고한 한국인 저자 중 생명공학을 전공한 저자가 83%에 달할 정도로 생명공학에 대한 우수한 성과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5년 들어 한국 생명공학계의 연구성과는 하나같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복제 개 <스너피> 탄생(Nature 8월),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의 냉동잔여배반포기 배아 미국특허 획득(7월)은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린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섭 교수는 몸의 시계기능을 관장해 생체시계로 불리는 뇌신경망 교신 유전자의 배일을 세계최초로 규명해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뉴런> 10월호를 장식했다.

한국의 생명공학 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제 학술저널의 논문게재와 특허등록 증가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논문인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임팩트팩터(IF) 15 이상의 세계 저명 과학잡지에 한국인 저자 투고 논문은 2004년 40건으로 2000년에 비해 2.3배 급증했다.

세계 3대 저널인 Cell, Science, Nature에 게재된 한국인 저자 논문의 수는 1999년 전무했으나 2004년에는 16건으로 늘었다.

미국특허에서 한국의 BT 특허경쟁력도 15위 수준이다.

2000-03년 총 204건으로 2000년 이후 85% 성장했는데, 미국의 BT 특허는 10% 증가에 그쳤다.

한국의 BT 특허는 2000년 이전 생물공정과 생물의약 분야에 집중됐으나 2000년 이후에는 유전체, 단백질, 진단시약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첨단 BT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T분야의 연구성과는 정부의 꾸준한 생명공학 육성정책에 큰 힘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고 1993년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시행하면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생명공학 육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BT는 자체적으로 산업화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등과 상호 융합·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1세기 첨단 산업사회를 주도하며 IT이후의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28>